

## 수능 난이도의 변화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sup>1)</sup>

김 현 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권 영 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이 명 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 《 요 약 》

---

본 연구에서는 수능 난이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설문 내용은 쉬운 수능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과 교사에게 미친 영향, 쉬운 수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쉬운 수능의 긍정적 효과로는 교과목과 지역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 동기 상승, 수업에 대한 집중도 향상, 자기주도학습 시간 증가 등이, 부정적 효과로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보다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 증가,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능-EBS 연계 비율에 대해서는 현행 70%가 적당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쉬운 수능과 수능-EBS 연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제어: 수능 난이도, 수능-EBS 연계, 쉬운 수능

---

### I. 서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대표적인 고부담 시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부담 시험이란 시험의 결과가 수험자의 학교 성적, 순위 결정, 합격 여부 등 수험자의 이익과 불이익에 작

---

1) 본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에서 수행한 “2011~2013학년도 수능 난이도의 관련 변인과 학교 교육에 대한 영향 분석”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chem95@kice.re.kr

\*\* 교신저자, kwonr2@kice.re.kr

용하는 평가로서, 수험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시험, 즉 개인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되는 시험이다(Madaus, 1988; 박세훈, 2010 재인용). 고부담 시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은 없지만, 상반된 주장들은 존재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비교육적인 관행을 초래하여 학교 교육을 황폐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박세훈, 2010; 조대훈, 2011a). 고부담 시험의 실시가 학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고부담 시험들도 학교 현장과 교사,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박세훈, 2010; 조대훈, 2011a; 조대훈, 2011b; Michaela M, 2012). 수능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수능과 같은 대학 입학 관련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수능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 혹은 내실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능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1학년도 이후 수능 관련 정책들은 수능 준비 부담 완화라는 세부 정책을 실천하면서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수능 준비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쉬운 수능이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EBS 교재를 채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계하겠다는 것과 영역별 만점자가 1%가 되도록 쉽게 출제<sup>2)</sup>하겠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1.2.16 보도자료). 이후 정부의 '쉬운 수능 정책'은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 관련 주요 국정 과제로 학교 교육 정상화, 대입 부담 경감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쉬운 수능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수능-EBS 연계 강화 및 수능 난이도 적정화 정책 등으로 구현되고 있는 현재의 쉬운 수능 정책이 학교 교육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 정책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능 관련 연구들은 주로 수능의 변천 과정과 그에 따른 쟁점,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탐색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김신영, 2009; 양길석, 2010), 수능 전수 자료를 활용하여 수능 성적과 지역을 연계한 분석하거나 수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성식, 2009; 김진영 외, 2009; 김양분, 신혜숙, 2010; 서민철 외, 2010; 박찬선, 주경식, 2011). 그 외에도 특정 과목들의 출제 경향과 시사점을 알아보거나 수능 문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나 오개념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과목별로 이루어졌다(이정우, 은지용, 2009; 서현숙 외, 2010; 남진영, 2011; 윤영진, 2012). 그러나 1992년 수능이 대학 입학 시험으로 도입된 이후 20년을 거치면서 정부 시책에 의한 변화가 자주 나타났고, 해마다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수능 난이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자료 수집이 어렵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양길

2) 만점자 1% 출제는 2012, 2013학년도 수능에만 적용되었으며, 수준별 시험이 도입된 2014학년도부터는 적용되지 않았음.

석(2010)의 연구에서 1993년~2009년 동안의 수능 관련 신문 사설에서 나타난 난이도의 문제를 정리하였으나 이는 난이도 조정 실패에 대한 논란을 정리한 것이며, 서민철과 박찬선(2013)의 연구는 쉬운 수능이 학력 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저학력 학교나 저학력 지역에서의 성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수능이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소규모 설문 조사를 활용한 것이었다. 김소현(2014)은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 수능의 특정 영역에 대한 인식을 물었으며, 장은섭(2011)은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 수능에 대한 인식을 그림과 글짓기를 통해 알아보았다. 실제 수능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수능 도입 직후인 1995년에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수능 도입 이후 학교 교육과 경영에서 나타난 변화를 설문 조사한 박병량 외(1995)의 연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및 교사 566명, 학생 5,7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1999학년도 수능에 따른 학교 교육의 변화를 살펴본 임찬빈 외(1998) 연구가 있을 뿐이다.

수능-EBS 연계 강화나 적정 난이도 유지 등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경훈 외(2011)의 연구와 조지민 외(2011)의 연구가 있으며 이 두 연구는 쉬운 수능이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조지민 외(2011)는 EBS 교육 콘텐츠의 학습 효과만을 분석하였고, 김경훈 외(2011)는 수능-EBS 연계 강화와 적정 난이도 유지가 수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운 수능의 실제적인 효과나 영향력을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

수능-EBS 연계 정책, 적정 난이도 유지와 같은 정부의 쉬운 수능 정책이 2012학년도 수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후, 2012, 2013학년도 수능은 2011학년도 수능에 비하여 쉬웠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의 학습 방식 및 수능 준비 태도, 교사의 수업 준비 및 운영, 학교 분위기 등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김경훈 외, 2011; 이명애 외, 2012a). 따라서 2011년 이후 수능-EBS 연계 강화 및 쉬운 수능이 정착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 교사의 수업 방식과 내용, 학생의 학습 방법이나 태도, 방과후 교육과 같은 학교 주변 여건 등에서 나타난 여러 변화를 수집, 분석하여 수능 난이도의 변화가 학교 교육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분석 결과는 쉬운 수능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함으로써 일련의 수능 관련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 도출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쉬운 수능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능 난이도의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위해 구체적인 수능 시험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쉬운 수능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2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쉬운 수능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 학생의 학습 방식, 교사의 수업 방식 등에 미치는 영향과 쉬운 수능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쉬운 수능 정책의 본래 목적인 사교육 경감 및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더욱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Ⅱ.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쉬운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은 쉬운 수능 정책이 적용된 2012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이후에 고3 수업을 담당하거나 담임 교사를 역임함으로써 수능 난이도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교사로 한정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 교사의 규모는 101개 학교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교사 3명씩, 300여명 정도를 예상하였다. 특정 과목이나 영역이 아닌, 수능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학교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응답 교사의 담당 교과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설문 대상 학교는 학생의 대부분이 수능을 준비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설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설문 조사 대상 학교는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16개 시도<sup>3)</sup>에 고르게 선정하였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단위 학교의 수능 성적에 따라 수능 난이도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6개 시도별로 수능 성적이 상·중·하 집단(이하 '지역 내 수준'으로 표기)에 속하는 학교를 각각 2개교씩 총 6개교를 추출하되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수능 성적 상·중·하에 속하는 학교를 각각 1개교씩 추가하였다. 이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읍면 지역을 과표집한 것으로, 쉬운 수능 정책이 지역 규모에 따라 미치는 영향, 특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설문 조사 대상 학교 선정이 복잡한 것은 쉬운 수능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규모와 성적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설문 조사는 2013년 6월 초부터 중순까지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설문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우편 발송전에 해당 학교 교감이나 관리자에게 전화로 설문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수능 정책이 적용된 시기에 고3 담임

---

3)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이지만,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세종특별자치시'는 연도 간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은 수업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가 63명이 되었다. 설문 응답자는 총 347명이었으나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63명을 제외한 284명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석은 지역 규모, 지역 내 수준, 담당 교과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대상 학교와 설문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대상 학교와 설문 조사 대상자의 특성

지역 규모	빈도(명)	비율(%)	지역 내 수준	빈도(명)	비율(%)	담당 교과	빈도(명)	비율(%)
대도시	120	42.3	상	97	34.2	국어	72	25.4
						수학	65	22.9
중소도시	100	35.2	중	94	33.1	영어	60	21.1
						사회탐구	48	16.9
읍면지역	64	22.5	하	93	32.7	과학탐구	37	13.0
						제2외국어	2	0.7
계	284	100.0	계	284	100.0	계	284	100.0

설문 조사 분석 대상자 284명이 근무하는 101개 학교의 지역 규모를 보면, 대도시 42.3%, 중소도시 35.2%, 읍면 지역 22.5%로 대도시가 비교적 많고, 읍면 지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수준은 설문 조사 분석 대상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해당 시·도에서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설문 조사 분석 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상 34.2%, 중 33.1%, 하 32.7%로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수준별 비중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 분석 대상자의 담당 교과는 국어 25.4%, 수학 22.9%, 영어 21.1%, 사회탐구 16.9%, 과학탐구 13.0%, 제2외국어/한문 0.7%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대상자의 담당 교과를 사전에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전공이 국어·수학·영어 영역이 많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거의 없었던 것은 설문 조사 대상자를 고3 수업이나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로 한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3. 설문 내용

설문 문항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학생의 변화, 교사의 변화, 쉬운 수능 정책에 대한 의견에 관한 내용이다. 각 영역별로 초기 개발된 설문 문항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개 영역, 총 25개 문항<sup>4)</sup>으로 구성되었으며, 구

4) 원래 보고서에는 응답자 일반 특성 및 학교 분위기의 변화 영역을 포함하여 6개 영역, 총 58문항으로

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영역 및 내용

영역	문항 내용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수업 방식의 변화	강의식 수업의 비중 변화 활동중심 수업의 비중 변화 문제풀이 위주 수업의 비중 변화
	사용 교재의 변화	EBS 교재 활용 비중 변화 교사 및 학교 자체 개발 교재 활용 비중 변화
학생의 변화	학교 수업에서의 변화	학생들의 학습 동기의 변화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집중도의 변화
	수능 준비 태도의 변화	수능에 대한 자신감의 변화 학습에 대한 부담감의 변화 수능 포기 경향의 변화
	학습 방식의 변화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변화 사교육 참여 감소 여부
교사의 변화	수업 운영의 변화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 용이 정도
	수업에 대한 정의적 특성의 변화	학생의 수능 성적에 대한 책임감의 변화
	상호작용의 변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의 변화
쉬운 수능 정책에 대한 의견	수능-EBS 연계	수능-EBS 연계 정책의 긍정적 영향 수능-EBS 연계 정책의 부정적 영향
	수능-EBS 70% 연계율	교육 콘텐츠의 비중 변화 수능-EBS 70% 연계에 대한 생각 수능-EBS 적정 연계율 수능-EBS 연계의 지속 여부
	적정 난이도 정책	적정 난이도(만점자 1%) 정책의 긍정적 영향 적정 난이도(만점자 1%) 정책의 부정적 영향 수능 난이도의 방향
	쉬운 수능 정책	쉬운 수능 정책의 지속 여부

설문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에 관한 영역은 쉬운 수능 정책에 따라 나타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문항 중 4개 영역, 25개 문항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수능 난이도의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의 변화가 의미 있게 나타난 문항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명애 외, 2012b). 그러나 정규 수업 등에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활용하게 되며, 과목별 특성에 따른 전형적인 수업 진행 방식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업은 각 과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수능 대비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쉬운 수능 정책이 시행되면서 EBS 연계 교재가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쉬운 수능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실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김경훈 외, 2011; 이명애 외, 2012a).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쉬운 수능 정책에 의해 학교가 이전의 교육 방식이나 프로그램 활용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비정규 수업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수업도 포함하여, 수업 방식 및 사용 교재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학생의 변화에 관한 영역은 쉬운 수능 정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쉬운 수능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교사가 인지하는 학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쉬운 수능 정책은 학생들에게 사교육 경감, 학습 부담 완화, 학교 수업에 대한 태도 및 수능에 대한 자신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훈 외, 2011; 이명애 외, 2012a). 따라서 쉬운 수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쉬운 수능 정책이 기대하는 사교육 경감 및 학습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학습 동기, 학교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같은 학교 수업에서의 변화, 수능에 대한 자신감, 학습에 대한 부담감, 수능 포기 경향과 같은 수능 준비 태도의 변화, 자기주도학습 시간, 사교육 참여 정도와 같은 학습 방식의 변화로 구성되었으며, 그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4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변화에 관한 영역은 쉬운 수능 정책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쉬운 수능 정책은 대학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교사들에게 교사들의 수업 의욕을 저하시키고, 수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증가시키며, 비진학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지도에 곤란을 겪게 한다(신중식, 1995). 이 영역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중 수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수능 대비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명애 외(2012a)에서는 쉬운 수능이 교사들의 수업 책임감과 열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쉬운 수능으로 인해 학습 분량 및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수업 자료 제작과 공유가 용이해졌으며, 학생들에게 수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고 학습 진도를 점검하기가 수월해졌으며, 수능 성취도 향상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사교육 의존 정도가 줄고 학교 수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영역에서는 학습 의욕 고취의 용이 정도, 수업 준비에 대한 학생의 수능 성적에 대한 책임감의 변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4단계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쉬운 수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영역은 쉬운 수능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및 쉬운 수능 정책의 지속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수능-EBS 연계와 적정 난이도 수준(만점자 1% 수준)<sup>5)</sup>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수능-EBS 연계로 인한 교육 콘텐츠 이용의 변화, 수능-EBS 연계 적정 비율, 쉬운 수능 정책 지속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쉬운 수능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김경훈 외(2011)와 이명애 외(2012a)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긍정적 효과에 대한 문항에서는 학습 부담 완화, 사교육 의존도 감소, 학교 교육의 내실화, 자기주도학습의 강화, 학습 의욕 고취 중에서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효과에 대한 문항에서는 학생의 창의력 및 사고력 저하, 기계적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증가,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용,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대학별 고사 및 심층 면접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실질적 입시 부담 증가 중에서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다.

수능-EBS 연계로 인한 교육 콘텐츠 이용의 변화에 관한 문항은 교과서와 EBS 연계 교재의 사용 비율에 대한 질문으로 간단한 서술식으로 구성하였다. EBS 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조지민 외(2011)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쉬운 수능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EBS 연계 교재의 이용 비율 변화에 초점을 두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능-EBS 연계 정책은 사교육 의존도 감소와 자기주도학습 강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으나 EBS 교재 사용으로 인한 수업의 획일화, 교사의 수업 열의 저하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선택지로 제시된 내용은 김경훈 외(2011)와 이명애 외(2012a)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수능-EBS 연계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수능-EBS 연계율에 대한 인식을 4단계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는 문항과 적정 연계율의 정도를 직접 기술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쉬운 수능 정책은 쉬운 수능의 목표 난이도 수준에 영향을 받는 바, 쉬운 수능 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 문항은 향후 적절한 난이도 수준 설정에 대한 질문과 그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쉬운 수능 정책 이후 교사들이 인식하는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나타난 변화를 수업 방식, 사용 교재의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5) 쉬운 수능 정책에서 적정 난이도 수준으로 '만점자 1% 수준'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수업 방식에서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는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질문에 전체의 66.9%가 수업 방식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sup>6)</sup> ('그렇다' 54.8%, '매우 그렇다' 12.1%). 담당 교과에 따르면 외국어 영역<sup>7)</sup>의 경우(78.0%) 강의식 수업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탐구 영역은(58.4%) 다른 교과에 비해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협동 학습 등) 학생 활동을 강조하는 활동 중심 수업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1.9%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지역 규모 측면에서 도시 지역은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나(대도시 지역 65.8%, 중소도시 지역 67.0%), 읍면 지역(46.9%)은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쉬운 수능 정책 이후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 비중이 높아지고 학생의 활동을 강조하는 활동 중심 수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교과서 외의 교재를 사용하는)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64.8%가 쉬운 수능 정책 이후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 비중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은 지역 규모, 지역 내 수준,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그 비중이 높아졌지만, 특히 중소도시 지역 학교이거나 성적 수준이 높은 학교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교과별로 보면,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외국어 영역이 가장 높았고(80.0%), 수리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53.1%), 지역내 수준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참조).

〈표 3〉 문제 풀이 위주 수업의 비중 변화

설문 문항: (교과서 외의 교재를 사용하는)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규모	대도시	4	3.3	38	31.7	54	45.0	24	20.0	120	100.0
	중소도시	3	3.1	24	24.5	42	42.9	29	29.6	98	100.0
	읍면지역	1	1.6	29	46.0	24	38.1	9	14.3	63	100.0
지역 내 수준*	상	1	1.0	27	28.1	42	43.8	26	27.1	96	100.0
	중	3	3.2	26	28.0	43	46.2	21	22.6	93	100.0
	하	4	4.3	38	41.3	35	38.0	15	16.3	92	100.0

6)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합을 부정적 응답으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합을 긍정적 응답으로 표시하였다.

7) 교사들의 담당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로 표기하였으나, 담당 교과에 따른 반응 분석에서는 수능 시험의 명칭인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설문조사 시점이 2013년 6월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명칭이 국어, 수학, 영어로 변경되는 2014학년도 수능 실시 이전이기 때문이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국어	3	4.2	19	26.4	29	40.3	21	29.2	72	100.0
수학	2	3.1	28	43.8	24	37.5	10	15.6	64	100.0
영어	0	0.0	12	20.0	31	51.7	17	28.3	60	100.0
사회탐구	3	6.3	18	37.5	21	43.8	6	12.5	48	100.0
과학탐구	0	0.0	13	37.1	15	42.9	7	20.0	35	100.0
제2외국어/한문	0	0.0	1	50.0	0	0.0	1	50.0	2	100.0
계	8	2.8	91	32.4	120	42.7	62	22.1	281	100.0

\*  $p < .05$ 

사용 교재의 변화에서는, 수능-EBS 70% 연계 출제로 인해 지역 규모, 지역 내 수준, 설립 유형, 교과목에 관계없이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거의 대부분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및 학교 자체 개발 교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72.3%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사실 교재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의 91.4%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EBS 교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인 97.1%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 내 수준 측면에서 상 수준의 학교의 경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대부분의 교사들이 쉬운 수능 정책에 포함되는 수능-EBS 연계 출제로 인해 EBS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4〉 EBS 교재 활용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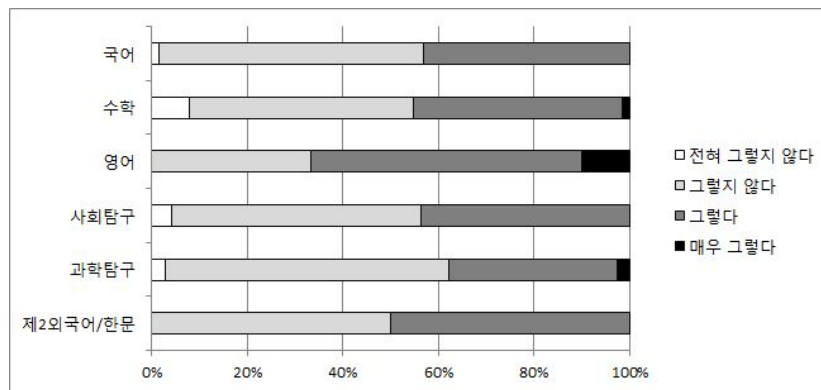
설문 문항: EBS 교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규모	대도시	1	0.8	1	0.8	26	21.7	92	76.7	120	100.0
	중소도시	0	0.0	3	3.0	21	21.0	76	76.0	100	100.0
	읍면지역	0	0.0	3	4.7	19	29.7	42	65.6	64	100.0
지역 내 수준	상	0	0.0	0	0.0	22	22.7	75	77.3	97	100.0
	중	0	0.0	3	3.2	17	18.1	74	78.7	94	100.0
	하	1	1.1	4	4.3	27	29.0	61	65.6	93	100.0
계		1	0.4	7	2.5	66	23.2	210	73.9	284	100.0

## 2.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의 변화

쉬운 수능 정책 이후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변화를 학교 수업에서의 변화, 수능 준비 태도의 변화, 학습 방식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높아졌다’와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질문은 교사들의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 교과 중 외국어 영역에서는 학습 동기와 집중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1), <표 5> 참조). 학습 동기가 향상되었다는 질문에서 외국어 영역의 긍정적 응답은 66.7%였으나 외국어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은 긍정적 반응에 비해 부정적 반응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과학탐구 영역은 37.8%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외국어 영역의 경우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학습 동기와 집중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학습 동기의 변화에 대한 담당 교과별 반응

<표 5> 학교 수업 집중도의 변화에 대한 담당 교과별 반응

설문 문항: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국어	3	4.2	40	55.6	29	40.3	0	0.0	72	100.0
수학	4	6.3	28	43.8	31	48.4	1	1.6	64	100.0
영어	0	0.0	22	36.7	34	56.7	4	6.7	60	100.0
사회탐구	3	6.3	24	50.0	19	39.6	2	4.2	48	100.0
과학탐구	1	2.7	20	54.1	15	40.5	1	2.7	37	100.0
제2외국어/한문	0	0.0	0	0.0	2	100.0	0	0.0	2	100.0
계	11	3.9	134	47.3	130	45.9	8	2.8	283	100.0

수능 준비 태도의 변화를 보면, 교사들은 쉬운 수능이 상위권 학생의 수능에 대한 자신감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특히 읍면 지역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였다'에 대해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의 자신감 증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위권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하위권 학생의 수능에 대한 자신감 변화의 지역 내 수준 결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표 7〉 참조). 상위권은 긍정적 반응이 61.4%, 중위권은 긍정적 반응이 63.3%, 하위권은 부정적 반응이 71.9%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 수준이 상인 학교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 지역 내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능이 쉬워짐으로 인해 상위권 학생의 경우 실수에 의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6〉 상위권 학생의 수능에 대한 자신감의 변화

설문 문항: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였다 - 상위권 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규모	대도시	5	4.2	47	39.2	53	44.2	15	12.5	120	100.0
	중소도시	2	2.0	35	35.4	49	49.5	13	13.1	99	100.0
	읍면지역	1	1.6	19	29.7	32	50.0	12	18.8	64	100.0
지역 내 수준	상	4	4.1	45	46.4	36	37.1	12	12.4	97	100.0
	중	1	1.1	28	30.1	53	57.0	11	11.8	93	100.0
	하	3	3.2	28	30.1	45	48.4	17	18.3	93	100.0
계		8	2.8	101	35.7	134	47.3	40	14.1	283	100.0

〈표 7〉 하위권 학생의 수능에 대한 자신감의 변화

설문 문항: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였다 - 하위권 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규모	대도시	14	11.7	67	55.8	39	32.5	0	0.0	120	100.0
	중소도시	10	10.0	61	61.0	29	29.0	0	0.0	100	100.0
	읍면지역	6	9.4	46	71.9	11	17.2	1	1.6	64	100.0
지역 내 수준*	상	5	5.2	59	60.8	33	34.0	0	0.0	97	100.0
	중	11	11.7	57	60.6	26	27.7	0	0.0	94	100.0
	하	14	15.1	58	62.4	20	21.5	1	1.1	93	100.0
계		30	10.6	174	61.3	79	27.8	1	0.4	284	100.0

\*  $p < .05$

교사들은 쉬운 수능이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학습 부담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읍면 지역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높았으며, 지역 규모와 지역 내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8〉 참조). 교사들은 쉬운 수능 정책이 하위권의 학생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위권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8〉 상위권 학생의 학습 부담감 변화

설문 문항: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 상위권 학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규모*	대도시	14	11.7	76	63.3	21	17.5	9	7.5	120	100.0
	중소도시	11	11.1	52	52.5	29	29.3	7	7.1	99	100.0
	읍면지역	5	7.8	25	39.1	29	45.3	5	7.8	64	100.0
지역 내 수준 ***	상	15	15.5	63	64.9	16	16.5	3	3.1	97	100.0
	중	10	10.8	49	52.7	27	29.0	7	7.5	93	100.0
	하	5	5.4	41	44.1	36	38.7	11	11.8	93	100.0
계		30	10.6	153	54.1	79	27.9	21	7.4	283	100.0

\*  $p < .05$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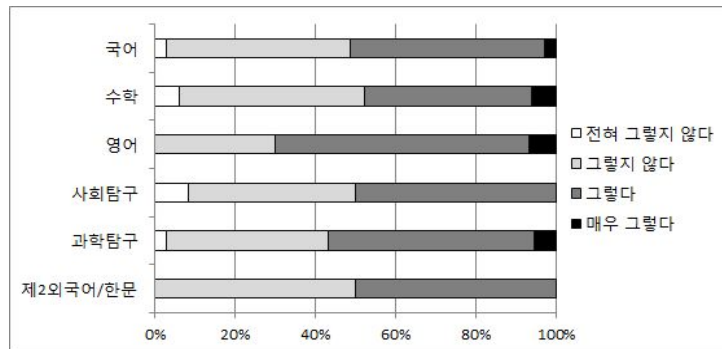
‘학생들이 수능을 포기하는 경향이 줄어들었다’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유사하였으나, 담당 교과에 따른 교사들의 반응은 부정적 응답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64.6%, 언어 영역 62.5%로 높았고, 수리 영역 47.7%, 외국어 영역이 35.6%로 낮았다. 수리와 외국어 영역만이 긍정적 반응이 부정적 반응보다 많았다(〈표 9〉 참조).

〈표 9〉 수능 포기 경향 변화에 대한 담당 교과별 반응

설문 문항: 학생들이 수능을 포기하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국어		6	8.3	39	54.2	25	34.7	2	2.8	72	100.0
수학		6	9.2	25	38.5	32	49.2	2	3.1	65	100.0
영어		8	13.6	13	22.0	34	57.6	4	6.8	59	100.0
사회탐구		5	10.4	26	54.2	17	35.4	0	0.0	48	100.0
과학탐구		0	0.0	20	54.1	14	37.8	3	8.1	37	100.0
제2외국어/한문		1	50.0	0	0.0	1	50.0	0	0.0	2	100.0
계		26	9.2	123	43.5	123	43.5	11	3.9	283	100.0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증가하였다'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54.9%)과 부정적 반응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담당 교과에 따른 반응은 긍정적 반응의 경우 외국어 영역이 70.0%로 가장 높고, 수리 영역이 47.7%로 가장 낮았다(그림 2 참조). 이는 수능-EBS 연계 출제로 인해 수능 준비에 필요한 교재, 즉 학습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져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외국어 영역과 같이 EBS 지문을 그대로 연계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변화에 대한 담당 교과별 반응

### 3. 교사의 변화

쉬운 수능 정책 이후 교사의 수업에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수업 운영의 변화와 수업에 대한 정의적 특성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교사들은 쉬운 수능 정책 이후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가 용이하였다.'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54.4%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였다.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차이가 크진 않았으나, 읍면 지역의 긍정적 응답이 61.9%로 도시 지역보다 높았고, 지역 내 수준에서 하 수준의 긍정적 응답이 59.1%로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학생의 학습 의욕 고취 용이성

설문 문항: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가 용이하였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규모	대도시	7	5.8	53	44.2	55	45.8	5	4.2	120	100.0
	중소도시	6	6.0	39	39.0	51	51.0	4	4.0	100	100.0
	읍면지역	1	1.6	23	36.5	37	58.7	2	3.2	63	100.0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내 수준	상	5	5.2	46	47.9	43	44.8	2	3.1	96	100.0
	중	5	5.3	34	36.2	52	55.3	3	4.3	94	100.0
	하	4	4.3	35	37.6	48	51.6	6	7.5	93	100.0
계		14	4.9	115	40.6	143	50.5	11	3.9	283	100.0

교사들은 쉬운 수능 이후 '학생의 수능 성적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다.'라는 질문에 '그렇다' 58.5%, '매우 그렇다' 16.3%로, 전체의 74.8%가 수능 성적에 대한 책임감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쉬운 수능 정책이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사 책무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1〉 참조). 그러나 교사의 책무성을 자발적 책무성과 강제된 책무성으로 나누어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교사의 책무성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1〉 학생의 수능 성적에 대한 책임감의 변화

설문 문항: 학생의 수능 성적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규모	대도시	4	3.3	25	20.8	70	58.3	21	17.5	120	100.0
	중소도시	3	3.0	21	21.2	59	59.6	16	16.2	100	100.0
	읍면지역	0	0.0	18	28.6	36	57.1	9	14.3	63	100.0
지역 내 수준	상	1	1.1	20	21.1	55	57.9	19	20.0	95	100.0
	중	3	3.2	22	23.4	53	56.4	16	17.0	94	100.0
	하	3	3.2	22	23.7	57	61.3	11	11.8	96	100.0
계		7	2.5	64	22.7	165	58.5	46	16.3	283	100.0

교사들은 쉬운 수능 정책 이후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질의 응답 등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졌다.'라는 질문에서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담당 교과에 따른 교사들의 반응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이 외국어 영역의 경우 63.3%로 가장 높았고, 언어 영역의 경우 3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영역의 교사들의 응답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외국어 영역의 교사들은 쉬운 수능 이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해 진 것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언어 영역의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어 두 영역 교사들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었다(〈표 12〉 참조).

〈표 12〉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한 담당 교과별 반응

설문 문항: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질의 응답 등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졌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국어	3	4.2	41	56.9	28	38.9	0	0.0	72	100.0
수학	3	4.6	27	41.5	34	52.3	1	1.5	65	100.0
영어	0	0.0	22	36.7	36	60.0	2	3.3	60	100.0
사회탐구	3	6.3	20	41.7	25	52.1	0	0.0	48	100.0
과학탐구	0	0.0	19	51.4	16	43.2	2	5.4	37	100.0
제2외국어/한문	0	0.0	1	50.0	1	50.0	0	0.0	2	100.0
계	9	3.2	130	45.8	140	49.3	5	1.8	284	100.0

#### 4. 쉬운 수능 정책에 대한 의견

교사들은 '수능-EBS 연계(70% 연계)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EBS 교재 위주 수업으로 인한 학교 수업 참여도 향상(41.4%)', '학습 방향 및 학습량에 대한 학생의 불안감 감소(40.3%)'가 높게 나타났다(〈표 13〉 참조). 쉬운 수능의 긍정적 효과로 교사들은 EBS 연계 교재 위주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교 수업 참여도가 향상되고 학습 방향과 학습량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징적으로 읍면 지역의 교사들은 사교육 의존도 감소를 가장 큰 효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13〉 수능-EBS 연계의 긍정적 효과(복수응답)

(단위: %)

설문 문항: 수능-EBS 연계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친 긍정적 효과

구 분		학습 부담 완화	사교육 의존도 감소	학교 교육의 내실화	자기주도학 습의 강화	학습 의욕 고취	학습 방향 및 학습량에 대한 학생의 불안감 감소	EBS 교재 위주 수업으로 인한 학교 수업 참여도 향상
지역 규모	대도시	27.9	25.2	14.4	30.6	9.9	41.4	45.9
	중소도시	34.0	33.0	4.1	26.8	14.4	46.4	38.1
	읍면지역	36.7	50.0	8.3	21.7	13.3	28.3	38.3



구 분		학습 부담 완화	사교육 의존도 감소	학교 교육의 내실화	자기주도학습의 강화	학습 의욕 고취	학습 방향 및 학습량에 대한 학생의 불안감 감소	EBS 교재 위주 수업으로 인한 학교 수업 참여도 향상
지역 내 수준	상	34.8	25.0	10.9	27.2	7.6	40.2	48.9
	중	26.1	34.1	6.8	30.7	20.5	44.3	35.2
	하	35.2	42.0	10.2	23.9	9.1	36.4	39.8
계		32.1	33.6	9.3	27.2	12.3	40.3	41.4

적정 난이도(만점자 1%)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자기주도학습의 강화’에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다. 지역 규모, 지역 내 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교사들은 ‘적정 난이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강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능-EBS 연계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기계적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증가’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4〉 참조). 이외에도 EBS 교재 중심의 학습으로 학생들의 폭넓은 학습이 부족하고 학교 현장에서 EBS 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표 14〉 수능-EBS 연계의 부정적 효과(복수응답)

(단위: %)

설문 문항: 수능-EBS 연계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친 부정적 효과

구 분		학생의 창의력, 사고력 저하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기계적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증가	다양하고 능동적인 수업이 어려움	학생의 실질적 입시 부담 증가	실수에 대한 실제 심리적 부담 증가
지역 규모	대도시	23.9	35.9	46.2	27.4	30.8	31.6
	중소도시	25.3	28.4	55.8	27.4	29.5	31.6
	읍면지역	23.8	33.3	47.6	25.4	33.3	30.2
지역 내 수준	상	17.9	36.8	46.3	27.4	32.6	35.8
	중	26.7	33.3	53.3	31.1	25.6	27.8
	하	28.9	27.8	50.0	22.2	34.4	30.0
계		24.4	32.7	49.8	26.9	30.9	31.3

교사들은 ‘적정 난이도(만점자 1%)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실수에 대한 실제 심리적 부담 증가(63.7%)’, ‘학생의 실질적 입시 부

담 증가(57.4%)’로 응답하였다. 즉 쉬운 수능으로 인해 시험에서 학생들이 실수로 점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하며, 대학 입시에서 논술, 심층 면접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져 실질적 입시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능-EBS 연계 정책 이후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교과서를 이용하는 비율이 줄고 EBS 연계 교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는데, 특히 방과후학교 수업의 경우 82.9%가 EBS 연계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에서는 외국어 영역이 가장 높았는데, 정규 수업에서는 76.8%, 방과후학교 수업에서는 90.5%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수능-EBS 연계 정책 이전과 이후 교육 콘텐츠의 변화

(단위: %)

		교과서 이용	EBS 연계 교재 이용	기타 자료 이용	계
‘수능-EBS 연계 정책’ 이전	정규 수업	45.7	25.4	28.9	100.0
	방과후학교	9.9	41.1	49.0	100.0
‘수능-EBS 연계 정책’ 이후	정규 수업	28.9	63.0	8.1	100.0
	방과후학교	5.9	82.9	11.2	100.0

담당 교과에 따른 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언어와 외국어의 경우 다른 교과에 비해 ‘수능-EBS 연계 정책’ 이전과 이후 정규 수업에서 EBS 연계 교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언어 28.0%에서 70.8%, 외국어 31.0%에서 76.8%). 방과후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EBS 연계 교재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으며, 특히 외국어 영역이 9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6〉 수능-EBS 연계 정책 전후 교육 콘텐츠의 변화에 대한 담당 교과별 반응

수능-EBS 연계 정책 전후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교재 이용률의 변화

구 분		교과서 이용(%)		EBS 연계 교재 이용(%)		기타 자료 이용(%)		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정규 수업	국어	43.0	22.0	28.0	70.8	29.0	7.2	100.0
	수학	51.4	37.0	19.4	55.1	29.2	7.9	100.0
	영어	40.9	19.3	31.0	76.8	28.1	3.9	100.0
	사회탐구	49.4	36.0	22.5	52.0	28.1	12.0	100.0
	과학탐구	43.5	32.2	26.0	55.4	30.5	12.4	100.0
	제2외국어/한문	80.0	70.0	0.0	22.5	20.0	7.5	100.0

구 분		교과서 이용(%)		EBS 연계 교재 이용(%)		기타 자료 이용(%)		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방과후 학교	국어	7.5	4.0	43.7	85.8	48.8	10.2	100.0
	수학	12.6	9.3	35.9	77.4	51.5	13.3	100.0
	영어	4.8	2.7	43.6	90.5	51.6	6.8	100.0
	사회탐구	16.2	8.5	42.1	77.3	41.7	14.2	100.0
	과학탐구	9.1	5.9	41.1	81.0	49.8	13.1	100.0
	제2외국어/한문	50.0	10.0	0.0	80.0	50.0	10.0	100.0

현행 수능-EBS 70% 연계율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57.1%로 전체 응답의 절반을 넘었고, 연계율이 높다는 의견은 38.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수능-EBS 적정 연계율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행 70%의 연계율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고, 50%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4.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담당 교과에 따른 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수리 영역(45.9%), 외국어 영역(36.4%), 사회탐구 영역(52.3%), 과학탐구 영역(44.1%)의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능-EBS 연계율로 '70%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언어 영역 교사들은 '50%가 가장 적절하다(38.5%)'고 응답하였다. 과목 간 차이가 있으나 현행 70% 연계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과목이 많았으며, 50% 연계가 적절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표 17> 참조).

〈표 17〉 수능-EBS 적정 연계율에 대한 담당 교과별 반응

설문 문항: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능-EBS 연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구 분	연계율(%)															계
	0	20	25	30	40	45	50	55	60	65	70	75	80	90	100	
국어	0	1	1	1	3	0	25	2	2	1	16	6	4	2	1	65
수학	1	1	0	2	1	0	13	0	1	0	28	3	8	2	1	61
영어	1	1	0	3	0	0	13	1	3	1	20	3	8	0	1	55
사회탐구	1	0	0	1	0	2	6	0	7	0	23	1	2	0	1	44
과학탐구	0	0	0	1	0	0	8	0	3	0	15	1	2	2	2	34
제2외국어/한문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2
계	3	3	1	8	4	2	65	3	16	2	104	14	24	6	6	261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능-EBS 연계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가 65.9%로 ‘폐지되어야 한다’ 22.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내 수준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8〉 참조).

〈표 18〉 수능-EBS 연계 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반응

설문 문항: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능-EBS 연계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지속		폐지		기타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규모	대도시	77	64.7	30	25.2	12	10.1	119	100.0
	중소도시	65	67.0	21	21.6	11	11.3	97	100.0
	읍면지역	42	66.7	12	19.0	9	14.3	63	100.0
지역 내 수준*	상	60	63.2	29	30.5	6	6.3	95	100.0
	중	58	63.0	21	22.8	13	14.1	92	100.0
	하	66	71.7	13	14.1	13	14.1	92	100.0
계		184	65.9	63	22.6	32	11.5	279	100.0

\*  $p < .05$

‘향후 수능의 난이도는 어떻게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난이도가 ‘유지되어야 한다(53.1%)’, ‘어려워져야 한다(30.8%)’, ‘쉬워져야 한다(14.3%)’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수능의 난이도가 현행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읍면 지역의, 지역 내 수준이 낮은 학교의 교사들은 수능의 향후 난이도 수준이 쉬워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대도시의, 지역 내 수준이 높은 학교의 교사들은 어려워져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19). 담당 교과에 따른 교사들의 반응도 모든 교과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가 비율이 가장 높고, ‘어려워져야 한다’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 수능 난이도의 향후 수준에 대한 반응

설문 문항: 수능의 난이도는 향후 어떻게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쉬워져야 함		유지되어야 함		어려워져야 함		기타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규모	대도시	17	14.5	58	49.6	40	34.2	2	1.7	117	100.0
	중소도시	12	12.8	52	55.3	27	28.7	3	3.2	94	100.0
	읍면지역	10	16.1	35	56.5	17	27.4	0	0.0	62	100.0
지역 내 수준	상	12	12.9	46	49.5	34	36.6	1	1.1	93	100.0
	중	9	9.8	50	54.3	30	32.6	3	3.3	92	100.0
	하	18	20.5	49	55.7	20	22.7	1	1.1	88	100.0
계		39	14.3	145	53.1	84	30.8	5	1.8	283	100.0

교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쉬운 수능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쉬운 수능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58.5%)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34.9%)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수준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하 수준(70.1%)이 가장 높았으며, 상 수준(52.7%)은 하 수준에 비해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0〉 참조).

〈표 20〉 장기적 관점에서 쉬운 수능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반응

설문 문항: 장기적인 관점에서 쉬운 수능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구 분		지속		폐지		기타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규모	대도시	67	57.3	43	36.8	7	6.0	117	100.0
	중소도시	57	60.6	29	30.9	8	8.5	94	100.0
	읍면지역	35	57.4	23	37.7	3	4.9	61	100.0
지역 내 수준**	상	49	52.7	40	43.0	4	4.3	93	100.0
	중	49	53.3	31	33.7	12	13.0	92	100.0
	하	61	70.1	24	27.6	2	2.3	87	100.0
계		159	58.5	95	34.9	18	6.6	272	100.0

\*\* $p < .01$

####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쉬운 수능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능 제도 개선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수능 정책의 수립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고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쉬운 수능 이후 학교 수업에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과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비중이 증가하였고,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정규 수업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EBS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담당 과목에 따라 쉬운 수능의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외국어 영역의 교사들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영역의 교사들은 쉬운 수능 이후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학교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쉬운 수능 이후 수능을 포기하는 경향이 줄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교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쉬운 수능 이후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질의 응답 등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졌다고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교과로 나타났다. 이는 수능-EBS 연계 출제로 인해 수능 준비에 필요한 교재, 즉 학습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져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으로, 외국어 영역과 같이 EBS 지문을 그대로 연계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역 규모에 따라 쉬운 수능의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들은 쉬운 수능이 옅면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쉬운 수능 이후 옅면 지역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가 용이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능-EBS 연계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지역 내 수준이 낮은 경우 연계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쉬운 수능 정책과 수능-EBS 연계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수능-EBS 연계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의 70%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0%가 적당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학교 현장의 주된 의견은 수능의 난이도를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지속하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운 수능 정책의 핵심은 EBS 연계라고 할 수 있는데, EBS 연계의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학교 수업 참여도 향상과 학습 방향 및 학습량에 대한 학생의 불안감 감소 등의 긍정적 면과 기계적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증가 등의 부정적 면이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쉬운 수능 정책이 유지되면서 부정적 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학교 수업에서 수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EBS 교재를 설명하고 문항을 풀어주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데, EBS 교재나 강의는 학교 수업이나 교과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수업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EBS 교재나 강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업 방식이 기계적 문제풀이 위주로 일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BS 연계 교재의 구성을 달리하여 문제풀이보다는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 학습 중심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토의 토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 탐구 능력 등은 문제 풀이만을 통하여 길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 측면에서 수능-EBS 연계 정책 하에서도 교사가 학교 수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쉬운 수능의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현실적 차원에서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은 본질적 차원에서 학교 교육이 궁극적으로 해결

해야 하는 것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책은 두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능-EBS 연계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수업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2011.2.16.).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 EBS 연계 정착. 보도자료.
- 김경훈, 권영락, 김동영, 박종훈, 박찬호, 신일용, 이명애, 권혁제, 김성래, 김희규, 박연중, 이규형, 최병기(201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S 2011-7.
- 김성식(2009). 시군구별 수능성적 분석: 지역 여건 변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4-64.
- 김소현(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 '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 **청람어문교육**, 49, 135-164.
- 김신영(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 22(1), 1-27.
- 김양숙, 신혜숙(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변인의 탐색. **교육평가연구**, 23(3), 591-615.
- 김진영, 민인식, 최필선(2009). 수능점수분포를 통해 본 학교 간 지역 간 학력편차 연구.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43.
- 남진영(2011).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 출제 체제에 관한 고찰. **학교수학**, 13(1), 89-105.
- 박병량, 변영계, 한대동, 성병창(1995).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육연구**, 5, 1-28.
- 박세훈(2010). 미국의 고부담 시험의 가능성과 한계. **비교교육연구**, 20(5), 1-21.
- 박찬선, 주경식(201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분포 특성-경기도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53-68.
- 서민철, 박찬선(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난도의 하향 출제가 학력 격차에 미친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19-38.
- 서민철, 신항수, 김혜숙, 김현미, 이정우(2010). 학력의 지역격차에 관한 공간통계학적 연구: 사회탐구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10-17.
- 서현숙, 황진석, 광대오(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물 문항에 나타난 과학적 소양 분석. **교과교육연구**, 14(3), 601-620.
- 신중식(1995). 입시위주 교육의 형성 배경과 교육에 주는 폐해 분석. **교육논총**, 14, 1-18.
- 양길석(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평가연구**, 23(4), 765-791.
- 윤영진(2012).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생활과 윤리』 평가 문항 출제의 기본 방향. **윤리교육연구**, 29, 187-212.



- 이명애, 권영락, 박찬호, 박기범, 김재홍(2012a).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
- 이명애, 장의선, 김경주, 김인숙, 김재홍, 박찬호, 양승호(2012b). 부가가치 모형을 적용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수능 CAT 2012-22.
- 이명애, 권영락, 김경주, 김인숙, 김재홍, 김현정, 정혜경, 임준범(2013). 2011~2013학년도 수능 난이도의 관련 변인과 학교 교육에 대한 영향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CAT 2013-20.
- 이정우, 은지용(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문화 과목의 답지 반응에서 발견되는 오개념 경향 연구, **사회과교육**, 48(3), 47-56.
- 임찬빈, 양길석, 성병창, 신진아(1998).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98-9.
- 장은섭(2011).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 **청람이문교육**, 44, 331-360.
- 조대훈(2011a). 고부담 시험 시대의 사회과교육: 학교 책무성의 신화, 학력, 그리고 교사 전문성의 관계. **Social Studies Education**, 50(2), 23-40.
- 조대훈(2011b). 고부담 시험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 사회과 교사들에 대한 질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43(4), 117-152.
- 조지민, 이명애, 남진영, 박찬호, 박종훈, 신동광, 박연복(2011). EBS 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수능 CAT 2011-1.
- Madaus, G. (1988). The influence of testing on the curriculum. in Tanner(Ed.) *Critical Issues in Curriculum*. 87th Tearbook of NSSE Part 1.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haela, M. (2012). Negative impacts of high-stakes testing. *Journal of Pedagogy*, 3(1), 82-100.

• 논문접수 : 2014-09-01/ 수정본접수 : 2014-09-29/ 게재승인 : 2014-10-13

## ABSTRACT

### Research on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Influences of the CSAT's Difficulty on School Education

Hyun Jung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Young Rak Kwon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Myungae Le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eacher's perceptions regarding the affects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s difficulty on school education. The influence of CSAT with lower difficulty(herafter, the Easy-CSAT) on the school programs, students, and teachers was investigated by survey. In survey results, it was noticeable that the Easy-CSAT policy resulted in enhancing students' motivation of learning and attention to class, and it was more likely in rural areas or in low-performing schools. But under the Easy-CSAT policy, lecture-oriented teaching or classes with more emphasis on solving test items increased, whereas classes enhancing student activities decreased. Consequently, 70% as the EBS linkage rate appeared appropriate, and many teachers, particularly from rural or low-performing schools, thought that both the Easy-CSAT policy and the CSAT-EBS linkage policy should be sustained in the long run.

Key Words : CSAT's difficulty, CSAT-EBS linkage, Easy-CSAT